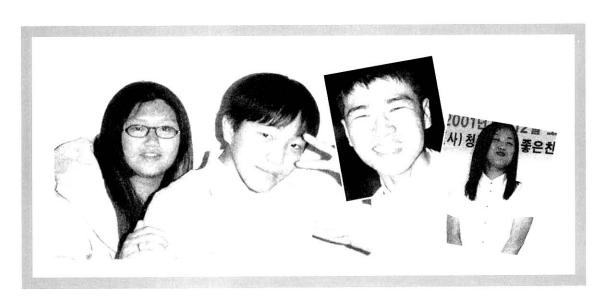
좋은친구만들기운동 문제아들이 어울리면 좋은 친구가 된다



그리스의 왕인 오딧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멘터였다. 멘터는 오딧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 지 10여년 동안, 왕자의 친구, 교사,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주었다. 이후 멘 터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멘터라는 낯선 단어를 만나게 되는 곳, 한국청년 연합회(KYC)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뜨거운 청춘 을 보낸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세월이 흐른만큼 시대도 변해 지금은 과거의 열정을 사회 곳곳에 아 름다운 삶을 채워넣기 위해 쏟아붓고 있다. 달라진 모습에 걸맞게 이제는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많이 달라져 편견처럼 굳어진 생 각을 버리게 한다. 좋은친구만들기는 진취적인 자원봉사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KYC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20~30대 청년들이 청소년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터' 라는 어려운 말을 창조적으로 바꾼 '좋은친구' 는 결연을 맺은 청소년과 만나면서 연극, 영화, 콘서트와 같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거나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공부를 도와주며, 진



로를 상담해 주는 상담가이자 친구로 활동하는 자 원봉사자를 말한다.

설명을 예서 그치면 편안한 동생 하나 만드는 것 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친구' 즉 '멘터' 의 상대 인 '멘티'는 세상에서 흔히 비행청소년이라고 부르 는 친구들이다. 한때의 실수로 교정당국의 보호관 찰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감탄사가 나온 다면 그 속에는 아마도 그리 녹녹치 않은 일이겠다 는 어림셈이 숨어있을지 모를 일이다. 형법에 거론 된 내용은 이런 생각에 무게를 보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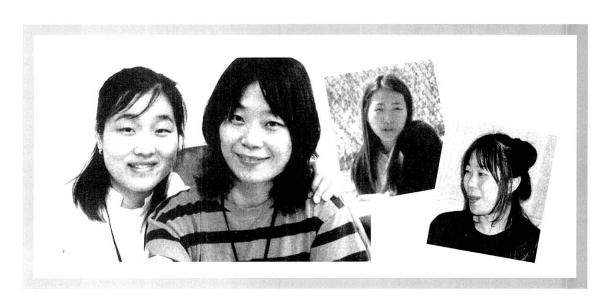
멘터는 보호관찰관을 대신해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만 나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의 권한 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보호관찰 관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엄격하게 관찰하고, 준수사항 위 반자를 정확히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며, 법원으로 하 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형법 제1203.1조)

그러나 좋은친구만들기는 이런 형태말고도 장애 청소년과 친구가 되거나, 실직 · 저소득 가정의 청 소년의 친구가 되어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통해 가정 문제도 함께 해결 해나가는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 그리고 평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의 도움을 주고 진취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등을 실시하는 예방적 성격의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면 나도 할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한 쌍의 결연 커플을 만나는 시간 충정로역에 내려 복잡한 사무 실 위치 설명을 곱씹으며 찾은 침침한 공간은 여전 히 무거운 등집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터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내음이 묻어있다.

운동보부를 맡고 있는 김순이씨의 환한 인사가 불러오는 따사로운 기운 속에 서울본부의 정영애간 사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한 쌍의 커플을 볼 수 있었다. 좋은친구로 활동하고 있는 송창훈씨와 그의 친구인 이현석(가명), 2년전 3기 모임에서 맺 어진 이 커플은 6개월의 활동 시한이 지난 후에도 끈끈한 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눈에도 마냥 순진해 보이는 현석이는 중학생 나이에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 잠시 유혹의 경계를 넘었었지만 좋은 친구를 사귄 덕인지 그 후로 순전 히 제 힘으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해 지금은 명문



으로 이름을 날렸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어디 그 뿐이랴. 현석이는 요즘 대학을 가겠다는 의욕이 넘실댄다. 아픔을 겪고 난 후의 성숙함이 엿보인다 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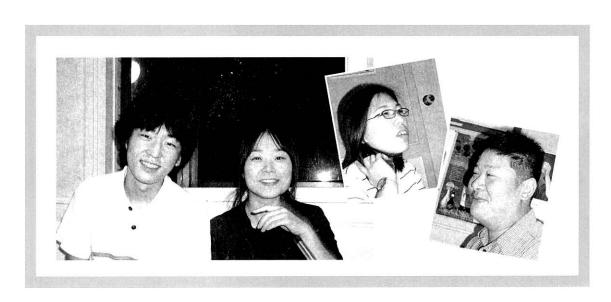
대학시절 대학생불교연합에서 활동했던 창훈씨 는 좋은친구가 됨으로써 모진 세파에 던져진 중생 구제에 나서고 있다. 현석과의 만남에는 종종 어부 인까지 참여시켜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는 지혜로움 도 갖추고 있다. 서른 네 살 창훈씨는 나이로만 보자 면 형보다는 아저씨가 어울리지만 현석 옆에서는 영락없는 형이다. 조금은 삐딱하게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는 형 아우 모습이 절로 드러난다. 지하철공 사에 다니는 창혼씨는 회사일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의 바람을 채워주는 현석의 모습이 마냥 대견스러운 모양이다. 연신 자 랑의 말이 이어진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순이씨 나 영애씨의 말을 빌자면 현석이처럼 모임에 빠지 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단다. 그러 고보면 둘의 만남을 억겁의 연이 쌓인 천생연분에 비할 수 있을까.

좋은친구만들기 사업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나면서

5기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맺어진 커플이 600쌍을 넘어 700쌍에 이른다하니 상당한 성과를 축적한 셈이다. 연륜이 쌓이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과 천안, 청주, 대구, 광주, 목포 등 전국의 KYC 지부 가운데 대부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부별로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청년운동단체를 지향하는 KYC로서는 상당한 열의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또한 운동의 과정 자체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일게다. 이리 보면 비록 과거의 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지만 좋은친구만들기는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자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 모습을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경험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봤을 땐 형은 물론 모든 사람이 낯설고 경계심이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니 외모와 달리 진지하고 지성적이고 '정'이 많은 분이란 걸 느꼈어요. 저를 동생처럼.... 조카처럼 잘 대해준 형에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미안했어요. 형이 저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도 형이 친형같고 정이 갔어요. 또



저의 여러 가지 사고들을 챙겨주고 잘해준 형! 고맙 습니다. 아직 형에게 말못한 걱정은 많지만 제가 해 결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라고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겁니다. 형! 이제 2월달이면 활동이 끝나요. 끝나고도 형과 연락 이 되겠죠"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고 있는 좋은친구만들기운 동은 이제 스스로의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8 월 5일 시작된 e-Mentoring사업이 그것이다. e-Mentoring사업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주 고받는 기존의 멘터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네트워크 상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다. 자원봉사의 길로 들어서기를 힘들어하는 인식의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낮춰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사업의 내용도 기 존의 사업과는 조금 달라 먼저 직업의 세계에 뛰어 든 멘터(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조언자가 되는 방식을 택하 고 있다. 청소년들이 멘터에게 질문하고 직업에 대 한 소개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조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 을 주고자 함이다. 아주 작은 일로도 자원봉사를 시 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KYC가 지향하는 문제적 삶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세속의 인간들이 낙인찍은 소위 문제아라는 존재는 문제 많은 세상이 만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다. 어찌 보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세상을 향해 삿대질 하 는 모습은 멘터나 멘티나 비슷한 모습이다. 좋은친 구만들기는 이렇게 문제아들끼리 짝을 지어 참으로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니 말 그대로 좋은 만남이 다. 요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면 머릿속 복잡함을 어림 짐작은 해야 할 터이니 스 스로 문제를 찾아나서는 KYC 같은 단체가 어찌보 면 제격이라 할 수도 있겠다.

멘터라는 낯선 단어는 다른 이를 변화시키기 위 한 일이지만 참여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변화를 체 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변화 하는 과정에 스스로를 던질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변 화를 이루는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든 사람이다. 세 상의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변화를 이 끌어주는 멘터가 되기를 소망해본다